

신종 코로나 확산 막자...농협, 방역 강화

전남본부, 마스크 18만개 배포...석곡농협 고령 조합원 무료 지급 전국 영업점 방역·손세정제 비치·피해 중소기업인 금융지원 실시

전남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농협 지역본부들이 33만 농가인구를 지키기 위해 위생·방역 강화에 나섰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전남 첫 확진자가 발생한 6일 마스크 18만개를 지역 455개 농협 협 사무소에 배포했다고 9일 밝혔다.

전남본부는 3월 전까지 농한기라 감염 우려가 도시에 비해 적지만 정례회와 각종 캠페인·행사·직원 교육 등을 취소하거나 간소화 하면서 만일에 대비하고 있다. 최근에는 22번 확진자가 부업으로 재배한 딸기 농산물을 납품한 하나로마트 점포 2곳이 지난 8일까지 임시 휴업하기도 했다.

전남본부는 농협형 영업점 창구에 손 세정제를 비치하고 감염증 예방수칙 안내문을 전 영업점에 게시했다. 곡성 석곡농협은 설 연휴 뒤인 지난 달 30일 고령 농업인 등 조합원을 대상으로 마스크 1만2000개를 무료로 배포

하기도 했다.

광주 30개·전남 67개 등 전국 1134개 농협 은행 모든 영업점도 방역을 실시하고 점포 TV로 감염예방 수칙을 홍보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달 28일 주요부서장 긴급회의를 열고 신종코로나 감염예방을 위한 종합 대책을 세웠다.

농협은행과 농협형 영업점 직원에게는 마스크를 지급해 착용 근무하도록 조치했으며 신종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개인·중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책도 마련했다.

농협중앙회 상호금융과 NH농협은행은 6월 30일까지 신규대출에 대한 금리우대와 이자납입 유예 혜택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고객에게도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기한연기 및 이자납입 유예 등을 실시한다.

신규 대출 이용 고객의 경우 최고 1%포인트, 조합원의 영농자금의 경우 2%포인트 이상 대출금리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대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6일부터 455개 농협 전사무소에 무료 마스크 18만개를 배포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출실행일로부터 가장 12개월까지 이자납입 유예된다. 기존 대출 고객 피해자의 경우에도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한연장 또는 재대출 때 우대금리 및 이자납입 유예 혜택을 주고 연체이자 일부를 감면할 방침이다.

김석기 전남본부장은 "농협 전남본부는 농촌지역 농업인과 영업점을 찾는 고객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를 지원하며 위생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수자원공사, 세계 물의 날 '영상 공모전'

물의 소중함 주제로 25일까지

한국수자원공사가 '유엔 세계 물의 날'(3월 22일)을 앞두고 이달 25일까지 '영상 공모전'을 진행한다.

9일 수자원공사는 이 기간 동안 '물과 기후 변화, 우리의 미래'를 주제로 물의 소중함을 알리는 영상 작품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영상은 물 절약, 수돗물 이용, 저탄소 생활, 에너지 전환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제를 담아 제작하면 된다. 광고, 애니메이션, 순수

창작, 브이로그, 1인 방송, 댄스, 뮤직비디오 등 자유로운 형식으로 30초~2분 이내 분량의 디지털 영상파일로 보내면 된다.

상금은 대학생·성인부문 대상 500만원, 청소년 대상 200만원 등 총 1560만원이다.

1차 심사에서 선정된 24개 영상은 유튜브에 공개되며 온라인 대국민 심사를 거친다. 1차 심사에서는 창의성과 공익성, 정보전달력, 표현력 등이 평가된다. 최종 수상작 12편은 1·2차 심사 점수를 합산해 결정된다. 수상 작품은 수자원공사 공식 블로그에 3월13일 발표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겨울대파 공급과잉 우려에 산지폐기 추진



겨울 대파 전국 생산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진도 대파 재배지. <광주일보 자료사진>

전남도, 161ha 규모 진행

겨울대파 생산 과잉이 예상되면서 최대 재배지인 전남지역의 대파 시장격리가 진행된다.

9일 농협 전남본부와 전남도 등은 겨울대파 수급안정을 위한 채소가격안정제사업으로 161ha 규모에 대한 산지 폐기를 다음달 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남지역 대파 재배면적(노지·시설)은 3742ha로, 지난해(3571ha)에 비해 4.7%(171ha) 증가했다. 전남지역 겨울대파 재배면적은 전국의 97%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 겨울대파 계약규모는 690ha 정도다.

농협은 전남지역 올 겨울대파 생산량을 평년 대비 11% 많은 12만5000t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가격은 평년 절반 수준에 그쳐 올해 1월 도매시장 상품 1kg당 가격이 724원까지 하락했다. 광주 양동시장에서 팔리는 대파 1kg 가격은 2000원으로, 평년 가격(2980원)보다 32.8% 낮다.

산지 유통인의 거래도 낮아 출하율이 평년(40~50%)보다 낮은 3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농협과 전남도, 생산자 대표 등은 지난 달 대책회의를 가진 뒤 추가 시장격리의 필요성이 지속됨에 따라 추가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촌경제연구원, 농촌공간계획 의견 주세요

국민참여 홈페이지 개설

17일까지 기념 이벤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농촌공간계획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하고 오는 17일까지 개설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6일부터 '농촌공간계획' 홈페이지를 열고 국민이 참여하는 중장기 농촌 발전계획을 수립한다고 9일 밝혔다.

홈페이지는 '농촌공간계획 소개'와 의견을 낼 수 있는 '국민제안·정책제안', 정책자료,

온라인 설문조사, 공지사항 등으로 구성됐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이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과 정책 실무자 의견을 광범위하게 모아 농촌공간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은 10~17일 '농촌공간계획에 바란다' 이벤트를 열고 추첨을 통해 커피 상품권을 증정한다.

우리나라 농촌 공간에 대한 의견 또는 농촌 공간계획에 담았으면 하는 내용들을 '국민제안·정책제안' 게시판에 사진과 글로 남기면 된다. 당첨자는 2월 말에 발표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주간 증시 전망

'신종 코로나' 진정세에 코스피 2200선 회복 중 공장 중단에 국내 차 공장도 생산중단 사태 신종 코로나 관련뉴스·美 민주 경선 관심 필요

중국을 중심으로 각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진행 중이다. 중국의 감염자 수가 8일 기준 3만명을 넘기고 사망자 수도 700명을 넘어섰다. 바이러스 확산속도에는 변함이 없지만 지난주 코스피지수 +4.39%, 2211.95pt와 코스닥지수 +4.69%, 672pt로 상승하며 설 연휴 이후 하락폭을 상당 부분 만회했다. 다우지수와 나스닥지수 등 미국 3대지수도 미국 1월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지난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신종 코로나로 휴업했던 중국상해종합지수 역시 2월 3일 -7.72% 폭락을 기록한 이후 4일 연속 올라 저점 대비 +4.70% 상승해 2875.96pt까지 회복했다.

그렇다면 주식시장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은 끝난 것일까?

과거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등 질병이 주가에 미치는 기간은 한 달 내외였다. 지난주 언급했 듯이 감염자수가 증가하는 시기에는 충격으로 하락하며 변동성을 확대시키지만 감염자 수가 진정세를 보이면 주식시장은 선반영하며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지난주 글로벌 주식시장은 과거 질병이 단기 변동성을 높이는 했지만 증시 방향성을 전환시킨 적은 없었다는 점과 학습효과에 따라 이 전보다 더 이른 시기에 반등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 3대 지수가 신고가를 기록하고 코스피지수가 지난 주 설 연휴 이후 급락분을 상당 부분 회복했지만 아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에서 벗어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지난주 반등 폭을 감안했을 때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따른 단기 저점은 기록했을 수 있지만 감염자 수의 확산 속도를 감안하면 아직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어 현시점에서 추격 매수보다는 고점과 저점을 활용한 변동성 매매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투자자들이 주목할 점은 예상과 다르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 장기화되는가를 살펴야 한다. 사망률은 낮지만 감염률이 높아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 정부가 중국 전역 공장 가동을 중단하면서 국내 자동차 공장도 생산중단 상황이 발생했다. 글로벌 부품체인에서 중국은 저임금을 활용한 기초부품을 담당하고 있어 중국정부의 대응이 강화될수록 중국 및 아시아 성장률에 충격이 커질 수 있다. 그리고 사스 발생 당시는 글로벌증시가 2000년 고점을 형성한 이후 상당한 조정을 거쳐 침체국면의 말기였던 반면 지금은 2009년 하반기 이래 11년째 지속된 확장국면의 후반부에 위치하고 있는 점도 성장률을 자극한다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주에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뉴스와 함께 11일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과 13일 국내 선물옵션 동시 만기에 관심이 필요하다. 민주당 아이오와주 당원경선에서 예상치 못했던 중도성향의 부티지후보가 1위를 기록했다. 버니 샌더스나 엘리자베스 워렌 같은 극단적인 성향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고 뉴햄프셔프라이머리에서도 부티지지가 선전한다면 금융시장에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13일 만기를 앞두고 외국인 포지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연말 외국인인 6만 계약이 넘는 극단적인 과매수를 기록했는데 연초 이후 순매도를 보이다 지난주에만 3만 계약이 넘는 순매도를 기록했다. 아직까지는 순매수포지션으로 예상되지만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외국인의 극단적인 선물매매는 시장변동성 확대를 가져오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한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2지역본부장>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